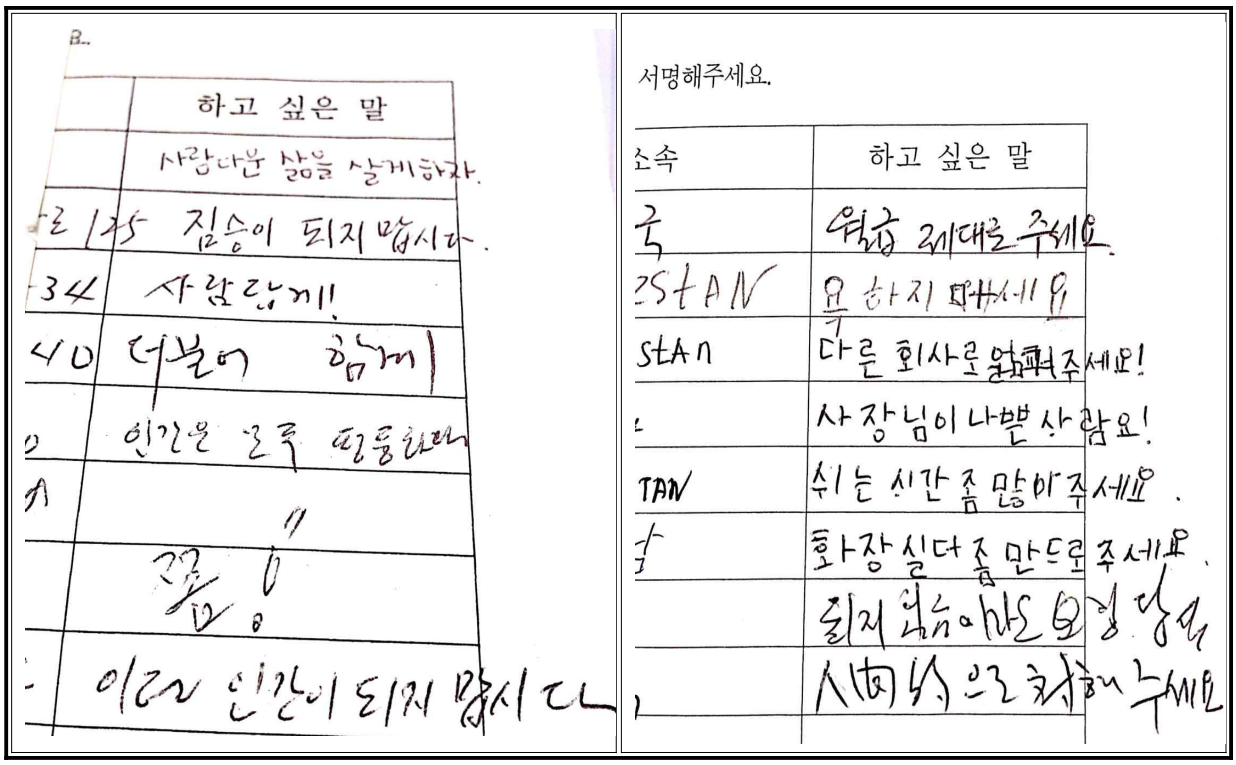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위한 시민모임

이주민과함께 상담실장 김그루 051-802-3438, 010-5181-3438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국장 정해 055-388-0988, 010-2768-6275

수 신 언론사
참 조 사회부
일 자 2017년 12월 18일
제 목 세계이주노동자의날(12.18)을 맞아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 서명결과 고용노동부 전달

12.18 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아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 서명 고용노동부 전달



	하고 싶은 말
	사람다운 삶을 살게하자.
2	짐승이 되지 맙시다.
3	사람답게!
4	더불어 함께!
5	인간을 존중합시다
6	〃
7	〃
8	이건 인간이 되지 맙시다

서명해주세요.

소속	하고 싶은 말
국	원숭 레대로 주세요.
2STAN	욕하지 마세요
STAN	다른 회사로 옮겨주세요!
	사장님이 나쁜 사람요!
TAN	쉬는 시간 좀 많이 주세요.
국	화장실 다 좀 만들로 주세요.
	월지 않아 보통
	人间的으로 취급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하라!
일한 만큼 돈 받고, 일한 만큼 쉬어야한다,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깻잎 밭 이주노동자들을 만났던 그 때

지난해 9월, 1년도 한참 넘은 그때 밀양 깻잎 밭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임금과 임금체불, 불법적인 파견근로와 비인간적인 숙소로 이주노동자 상담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반말과 차별적 언사, 사업주 편향적인 조사만 거듭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농장주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불법파견, 기숙사비 부당공제' 노동부 진정사건은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해 고소고발을 제기하였지만 노동부에 제기한 뒤 1년 만에 검찰로 간 이 사건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 깻잎 밭을 비롯한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면서도 그 유형이 대부분 유사했습니다. 개별적인 상담으로 노동부에 제기해도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 계속 이어질 것이기에 지역사회에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으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 속에서 길러진 깻잎을 그저 맘 편히 먹을 수는 없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역연대, 부문 운동들의 연대

고용노동부가 외면하는 깻잎 밭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자는 기치로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노동단체, 여성단체, 생협단체도 기꺼이 함께 동참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2017년 4월 11일,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더 이상 노동착취, 인권유린 밥상이 아닌, 인권밥상을 차리자고 외쳤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밀양 깻잎 밭을 비롯한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실태를 담은 카드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양산지역 노동인권단체들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양산 시내에서 '깻잎인권 거리선전전 및 서명운동'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노동절 부산역 광장에서는 농업 이주노동자 숙소 사진전시를 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찍은 휴대폰 동영상을 모아 <지구인의 정류장>에서 만든 10분짜리 영상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고 또 분노케 했습니다. 현실을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캠페인단은 지역 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 영상을 함께 보고 농업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을 알고 문제점을 공유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7월에는 <"밥상의 양심을 묻는다" 농업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열었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여 단체들이 이 문제를 알리고자 분투했습니다.





깻잎 인권 캠페인 서명결과 고용노동부 전달

밀양 깻잎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지만 부울경 지역을 넘어서 타 지역에서도 공감과 연대의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우리 밥상의 농산물이 누군가에 대한 착취로 얼룩져 있다는 것을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밀양 깻잎 캠페인을 통해 지역 연대와 부문 운동들 간의 폭넓은 연대의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문제를 경험했던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기자회견에서도 나서서 연설하였지만 신분상의 불이익 우려와 생활고 문제로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반기 법제도 개선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은 한계이자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난 4월에 시작한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은 그간 서명운동에 참여한 1,800명의 서명과 소중하고 엄중한 메시지를 정리하여 12월 18일 고용노동부에 전달합니다. 12월 18일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전 세계 이주노동자들의 축제의 날이자 투쟁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1990년 유엔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 우리의 요구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하라!

일한 만큼 돈 받고, 일한 만큼 쉬어야한다,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라!

※ 담당자 : 김그루 010-5181-3438

○ 첨부1.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한마디
○ 첨부2.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 활동내용
○ 첨부3. 카드뉴스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

이주와인권연구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경지부, 부산노동자생협, 부산생협, 부산이주여성인권센터, 부산한살림, 부산YWCA생협, 생태유아공동체, 노동당부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부산시당
민주노총 양산시지부, 밀양송전탑대책위,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양산아이쿱,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YMCA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부울경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금속노조 울산지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한국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 희망웅상)
총 41개 단체 및 밀양시민들

첨부1.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한마디 (일부 발췌)

-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원합니다.
-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 모든 노동자는 동등해요.
- 힘내세요. 도와드릴게요.
- 다 같은 사람이다.
- 전 세계 노동자는 하나다.
- 내가 먹는 깻잎이 그들의 노고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 이주노동자는 쓰다 버리는 종이컵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63조 폐기하라.
- 일한만큼 주시고 쉬는 날 쉬는 시간도 주세요.
- 공정한 깻잎을 먹고 싶다.
- 노동부는 실태 파악하고 농장주 처벌하라.
- 사람답게 살자 쫌!
-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 눈물 없는 깻잎을 먹고 싶어요.

(고용노동부에게 한마디)

-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 농장주들 편은 농림부가 실컷 들어 줄 테니 노동부는 제발 노동자 입장에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신들의 노동으로 풍요로운 식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또 죄송합니다.
- 이주노동자는 근로 계약한 노동자다. 노예가 아니다. 정신 좀 차려라.
- 정부기관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답니까?
-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라!
- 깻잎 없이 살 수 있지만 인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사익을 보호하지 말고 노동자의 권익을 찾는데 노력하라!
- 고용노동부의 의지 부족이 바로 인종차별이다.
- 노동부면 일하는 사람들 좀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 뭐하세요? 어렵게 용기 내어 찾아간 이주 노동자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어주세요.
- 이주노동자도 사람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해외에서 받았던 설움을 기억하세요!
- 한국인이 외국에 노동자로 나가서 겪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이분들도 같습니다.
-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노동자들이 모여들고 각종 농공장에서 일하지만 이처럼 부당한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매우 부끄럽습니다. 모른 척 일관하는 관공서는 각성하세요!!!!!

● 내 권리가 중요하려면 남의 권리도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게 한마디)

● 불의에 저항하고 문제제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힘이 납니다. 힘냅시다!

● 당신들의 노동으로 풍요로운 식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또 죄송합니다. 금방 좋아지지 않겠지만 차츰 좋아질 것입니다.

● 힘내세요!! 저희의 밥상이 여러분의 수고로 이루어지니 감사합니다.

● 우리의 밥상은 이주노동자의 눈물과 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 오늘 제 밥상에 올라온 깻잎이 여러분의 손길을 거쳐 온 것일 수도 있음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 살고 있습니다!

● 이주민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조금의 힘이라도 모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권을 응원합니다!

● 국가와 인종과 성별과 나이에 관계없이 노동자는 하나다. 힘내세요. 함께 싸웁시다.

● 부디 잘 해결하시고 취업하실 때 꼭 잘 알아보세요.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씻어 드려야 할지...

●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힘내십시오.

● 제가 깻잎을 참 좋아하는데요. 싼 이유가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 힘든 여건이지만 포기하지마시고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첨부2.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 활동내용

일자	일자	활동	장소
2017년 1월	17(화)	밀양 깻잎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임 결성 및 캠페인 참여 제안 (1차) - 부산울산경남 노동·인권·여성·환경·생협 운동 단체에 제안서 송부	
	25(수)	밀양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밀양농민회, 밀양송전탑대책위, 민중행동밀양, 민주노총밀양공무직본부, 전교조밀양지부 등 활동가 16명 참가) - 밀양 너른마당	밀양
2월		밀양 깻잎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임 결성 및 캠페인 참여 제안 (2차)	
3월		밀양 깻잎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모임 결성 및 캠페인 참여 제안 (3차)	
4월	11(화)	캠페인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 (부산지방노동청) 온라인/오프라인 서명운동, 카드뉴스 배포 진행	부산
	13(목)	양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양산시청 프레스룸)	양산
	16(일)	깻잎인권 거리선전전 및 서명운동 (1차)	양산
	26(수)	깻잎노동자 인권문제 기고 (사회변혁노동자당 기관지)	
	27(목)	농업이주노동자 인권실태 간담회 (양산 아이쿱)	양산
	28(금)	CBS부산 라디오 인터뷰	부산
5월	1(월)	숙소사진전 및 서명운동 진행 (부산역 광장) -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노동자들 및 신나는연대	부산
	7(일)	녹산노동자 체육대회에서 깻잎인권 서명운동 진행 (녹산)	부산
	12(금)	농업이주노동자 인권실태 간담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
	14(일)	울산이주민페스티벌에서 깻잎 캠페인 진행	울산
	15(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이주외국인소위와의 간담회	부산
	21(일)	깻잎인권 거리선전전 및 서명운동 (2차)	양산
	26(목)	농업이주노동자 인권실태 강의 - 가톨릭상담소 미사	부산
6월	1(목)	농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공유 - 가톨릭상담소 미사	부산
	23(금)	깻잎인권 간담회 (울산지역 노동사회단체와 함께)	울산
	26(월)	깻잎인권 토론회 준비를 위한 회의	부산
	29(목)	부산차별철폐대행진 기간 깻잎인권 캠페인 -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부산지방노동청 앞)	부산
7월	13(수)	깻잎인권 간담회 (김경숙여성운동가 추모사업회)	창원
	19(수)	“밥상의 양심을 묻는다” 농업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심포지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와 공동주최)	부산 김해
	22(토)	라디오 시민세상 인터뷰	부산
10월		깻잎인권 선전전 및 서명운동 - 거제 이주노동자 체육대회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주관)	거제

첨부3. 카드뉴스


눈물로 차려진
우리의 밥상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
1/15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휴일은 한 달에 고작 하루나 이틀
그렇게 일하고 받은 월급은 100~120만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3/15
차양막으로 덮은 비닐하우스 안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 이들의 기숙사
비만 오면 쓰레받기로 물을 퍼내야 했던
이 집의 월세는 1인당 30만 원이었습니다.
4/15
창문도 없고, 온수도 안 나오고, 심지어 화장실도 없는
기숙사에 살면서 수십만 원의 월세까지 떼입니다.
6/15
여기에 농업 이주노동자의 30%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7/15
불만을 말하면 돌아오는 건 욕설과 손찌검…
너희 나라로 쫓아 버리겠다는 협박입니다.
"일 많아요,
돈 적어요,
화장실 없어서 힘들어요.
사장님이 이모 때니
들어와서
무서워요…"
이런 일터,
그냥 그만두면 안되냐고요?
8/15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꾸려면
근로조건 위반, 임금체불,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9/15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근무일지도 출퇴근 기록부도
믿을 수 없다며 CCTV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농업 노동자는 아무리 오래 일해도, 휴일이 없어도,
노동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적용 제외)
10/15
숙소 제공은 고용주의 의무가 아니니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법에는 화장실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법을 어긴 건 없다고 합니다.
11/15
밀양 깻잎, 남양주 상추, 태백 배추,
청도 미나리, 담양 딸기, 홍성 돼지…
모두 농업 이주노동자들이 키우고 있습니다.
12/15
눈물로 우리의 밥상을
채워주는 농업 이주노동자
그들도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13/15
저희와 함께 인권밥상 차려 보실래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도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연대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https://goo.gl/AKrjF1
15/15

끝.